

GIST, 제61회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 글로벌 아트 기획자 이대형 예술감독 초청

- '0과 1 사이의 무한공간' 주제 강연... 데이터 시대 예술의 본질과 가치 조명
- 예술·기술 융합 경험 바탕으로 인간 감각 중심 예술 가치 제시



▲ GIST아카데미가 3월 30일(월) 오룡관에서 이대형 예술감독을 초청해 제61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3월 30일(월) 오룡관에서 **제61회 GIST 아카데미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 기획사 'Hzone'의 대표인 이대형 예술감독이 초청돼 **'0과 1 사이의 무한공간: 데이터 시대 예술이 잃어버린 것과 되찾아야 할 것'**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대형 감독은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온 문화·예술 기획자로,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설계해 온 인물**이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 **'CONNECT, BTS'**을 비롯해, 인간의 몸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고펀리(Antony Gormley), 과학과 건축을 결합한 설치 작업으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토마스 사라세노(Tomas Saraceno)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를 기획·총괄해 왔다.

또한 2017년 제57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며 국립현대미술관(MMCA), 테이트(Tate) 등 국내외 주요 미술 기관과 협업을 이끌었다.

이 감독은 이번 강연에서 데이터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이 인간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환경 관련 데이터와 연구 자료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실질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예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아울러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과 지질학자 미닉 로싱(Minik Rosing)이 협업한 설치미술 작품 '아이스워치(Ice Watch)'를 기후 변화 인식 제고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 2018년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에서 개최된 설치미술작품 '아이스 워치(Ice Watch)'. 덴마크 출신 현대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과 지질학자 미닉 로싱(Minik Rosing)이 그린란드에서 가져온 빙하 조각 24개를 배치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했다.

이 작품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을 시작으로,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COP21), 2018년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전시됐으며,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실제 빙하 조각을 도시 한복판에 원형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이 흐르며 얼음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변화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한다.

이 감독은 "데이터와 정보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메시지를 감각적 경험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야말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 이대형 예술감독이 GIST아카데미 3월 조찬포럼에서 '0과 1사이의 무한공간: 데이터 시대 예술이 잃어버린 것과 되찾아야 할 것'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정보는 넘쳐나지만 인공지능(AI)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감각과 경험이 점차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과 인식"이라며 "0과 1 사이의 무한한 공간처럼, 예술과 인간 경험의 무한한 가능성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GIST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GIST아카데미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5월·6월·9월·10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동문을 위한 조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62회 조찬포럼은 5월 11일(월) 개최될 예정이다.